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권 제2호 pp. 191~192

농촌지도사의 길

박 명 수
금산군 농촌지도소

1965년도 농촌지도소에 공직의 첫발을 딛고 부락담당을 지정받아 부락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락 이장의 요청으로 농용석회 사용에 대한 야간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마을 광장의 정자나무밑에 40여명의 농민이 멍석을 깔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남포불속에서 이장님이 강사소개에 이어 영농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갓쓴 할아버지와 청바지를 입은 젊은 청년도 눈에 띄었습니다. 농용석회의 사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청중을 바라보니 20여명의 농민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구실로 자리를 비웠고 앞으로의 벼농사관리를 이야기하고 농민을 보니 모두 가고 한 노인이 열심히 머리를 숙이고 내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마워서 강의를 끝내고 가까이가 인사를 하고 보니 그 어른은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셔서 편히 잠을 자세요" 하였더니 할아버님께서 "미안하네, 나는 멍석임자인데 양반 체면에 이야기하는 것을 끝내라고 할 수도 없고 멍석을 지키다 잠깐 졸았네" 하시면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실패한 나의 첫 강의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강의와 지도 방법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후 농민교육이 있으면 사전 강의 연습을 실시하고 방법연시와 아울러 속담도 섞어가면서 농민의 궁금 사항에 대한 대화식 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겨울철 눈길에도 실물표본과 환등기를 녹색오토바이에 싣고 마을마다 새기술 새농사에 대한 과학영농교육을 실시하면서 목이 터지기도 하고 여름철 정자나무 밑에서 당면한 영농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농민들과의 대화를 자주 갖다보니 농민들로부터 인기없던 강의에서 지금은 일부 마을에서 교육요청을 하는 농촌지도사로 발전되었으며 우리 농촌지도사는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명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대화와 강의를 통해서 우리 농촌은 과거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보리고개를 걱정했던 가난과 굶주림의 농촌생활에서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을 이룩하였고 비닐 백색혁명으로 4계절 언제나 싱싱한 채소를 우리의 식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연합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미국, 영국, 덴마크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성공한 5개국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UR타결이후 새로운 여건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의 농업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되살리고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사는 선진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환경보존농업을 육성하며 세계시장을 개척 하여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농업의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농촌 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게 된 우리 농촌지도사들은 커다란 충격속에 실망을 갖게 되었읍니다. 물론 2년의 유보기간을 남겨놓고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여운을 두었지만 정부에서는 관계관, 농민대표, 전문학교 교수, 농촌지도사와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빙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새로운 GR시대와 21세기를 향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농촌지도사의 국가직과 지

방직의 전환문제를 결정하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농업의 국제경쟁에서 한가닥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맛과 향이 뛰어난 새 소득작목의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읍면별 순회교육 계획을 세우고 묵묵히 일하는 농민과 함께 좌담회와 협의를 갖는 농촌지도사의 위치가 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흔들이며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농민단체 및 학계와 7,000여 농촌지도사의 단결이 요구되며 아울러 우리의 작은 의견도 반영되길 바라고 농촌지도사업도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틀속에 농촌지도사들은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갖고 세계속의 한국 농업을 육성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농정의 최일선에서 또한번의 땀을 흘릴 것입니다.

끝으로 새로운 농업질서 속에서 새로운 농촌지도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학계와 농민대표 및 농촌지도사와 각계각층의 뜻을 모은 농촌지도학회의 참된 발전을 기원합니다.